

## 블레셋 사람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는 것처럼 당연히 국가도 주변국과 더불어 존재한다. 성경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리고 왕국 시대 전반에 걸쳐 가나안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관계를 형성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서로 전쟁을 하였고, 정치적, 혈연적 연맹을 맺기도 했으며 또한 경제적 교류를 했다.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을 살펴보기 전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 즉 블레셋, 페니키아(베니게 혹은 보니게), 모압, 에돔, 암몬, 아람 사람들의 최근 발견된 역사지리의 흔적들을 중심으로 만나보고자 한다. 먼저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보자.

이스라엘을 찾는 순례객들은 성경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들을 쏟아낸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바로 “오늘의 팔레스타인(Palestine)이 구약성경에 등장한 블레셋(Philistines) 사람인가?”이다. 만일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민족적 동질성을 묻는 것이라면 당연히 아니다. 그러나 ‘땅’에 관한 질문이라면 부분적으로 ‘맞다’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의 다양한 증거들을 통하여 좀 더 분명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과 가장 많은 접점을 벌였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혹은 바다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의 대표적인 다섯 도시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예그론으로(여호수아 13:3) 이스라엘의 남서쪽 해안가에 살았다. 이들이 살았던 땅을 히브리어 성서는 “Peleshet(펠레셋)”라 불렀고 우리말 성경은 “블레셋 사람들” 혹은 “블레셋”으로 번역하였다. 앗수르 문헌에서는 이 땅을 “Palashtu”(팔라쉬투) 혹은 “Pilistu”(필리스투)라 불렀다.

창세기 10:14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집트와 관련이 있었던 가슬루힘에서 왔다고 기록하지만 여러 성경 구절에서는 오히려 이들을 갑돌 혹은 갑돌 섬에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다(아모스 9:7; 예레미야 47:4; 신명기 2:23). 갑돌은 크레타의 히브리어 이름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갑돌 기원설을 지지하고 있다. 특별히 학자들은 호메로스(Homer)의 서사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전 14-12세기경 에게문명의 정치적, 경제적, 기후적 혼란으로 인해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난 사람들이 있었음을 증명했고 이 중에는 크레타 섬이 고향인 이들도 있었다. 크레타 섬에서는 에게 문명을 주도하였던 미노아 문명이 발전했었다. 주전 1400년 경 그리스 본토의 침입으로 크레타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주전 1300년 경 키프루스 섬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이 섬에 머문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다른 바다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를 공격했다. 람세스 3세의 카르낙 신전 벽화에는 테커, 데니엔, 세르덴, 베쉐시, 그리고 블레셋이라 불리는 바다 사람들과의 전쟁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어있다. 람세스 3세는 그들을 나일강에서 몰아내었다고 한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주전 1200년 전후 현재 이스라엘의 해안가에 정착하였다. 초기 그들의 토기, 종교적 형상들, 매장관습, 건물구조, 식습관 등에서 여전히 그들의 고향 냄새가 났다. 하지만 백년의 시간이 채 흐르기도 전에 그들은 가나안화 되어 갔다.

최근 가드(텔 에-사피 Tell es-Safi)에서의 발굴은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의 기원과 정착 그리고 문화 변화를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드는 현재 바르-일란 대학교 고고학과의 메이르(A. Maeir) 교수님의 지도아래 1996년 이후 현재까지 활발하게 발굴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적지이다. 골리앗의 고향으로서도 유명한 유적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D구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주전 9세기경의 파괴 흔적이 열왕기하 12: 17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람왕 하사엘의 침입으로 여겨져 더욱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 2011년 임미영 박사가 인솔한 한국 고고학 발굴팀은 D구역을 서쪽지역으로 확장하여 하부 도시의 크

기를 가능하는 일을 맡았다. 겨우내 내린 비로 인해 엉망이 되어버린 발굴현장의 코너를 정리하다가 지표면 10cm 아래에 각을 잘 다듬은 90도로 각진 돌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코너를 다듬어 갈수록 돌의 형태는 드러났으며 이 각진 돌은 제단의 뿔이었다. 발굴로 드러난 것은 두 개의 뿔이 달린 100cm 높이의 제단이었다. 세계적인 잡지 "Biblical Archaeology Review"는 이 제단을 "2011, 올해의 유물"로 선정하기도 했으며(Maeir 2012) 유명 방송국들은 앞 다투어 취재를 했다.

가드의 제단은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4개의 뿔이 아닌 두 개의 뿔만이 있었다. 이렇듯 두 개의 뿔을 신성화하여 제단을 사용했던 흔적을 표현한 유물들(인장, 목관, 점토 형상등)이 발견되는 곳은 크레타 섬이다. 크레타 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미노아 왕국의 미노타우루스와 라비린토스에 관한 신화는 황소와 관련된 유명한 신화로 1901년 미노아를 처음 발굴한 에반스는 이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뿔들이 표현된 유물들을 황소 뿔의 신성화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크레타 즉 갑돌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아마도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함께 종교적 관습도 가지고 갔을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쪽 해안가에 정착한 이후 3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노아의 전통인 두 개의 뿔만을 조각한 제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고향 문명을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닌 듯하다. 하지만 제단의 전체적인 모습에 있어서 돌 하나를 깎고 돌을 장식은 조각한 므깃도의 제단과 유사하여 아마도 그들의 물질문화가 가나안 혹은 이스라엘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점차 물질문화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았음이 성서적, 역사적,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증명되었다.

주전 732년 앗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의 이집트까지 정복하고자 했던 야망은 해안 도로상에 위치해 있던 블레셋의 다섯 도시를 휩쓸고 지나갔다. 그의 궁정 벽 부조에는 아랏과 아스글론의 포위된 블레셋 사람들이 남겨져 있다. 10년 후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르곤에 의해 멸망할 때 블레셋은 소규모의 도시 국가로 겨우 살아남았다. 그러나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와 함께 바빌론의 손에 완전히 초토화되었다. 바빌론의 잔혹함은 블레셋의 도시를 불태워 버렸고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하지만 유다와는 달리 그들은 다시는 그들의 도시로 돌아오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세계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그들이 살았던 지역은 신약 시대 전후에도 헬라어로 "필리스티아 혹은 팔레스티아" 즉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의미로 불렸다.

주후 135년, 로마의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유대인들의 제2차 반란을 주도했던 바르 코크바와 그의 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정복한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나누면서 하드리아누스는 이스라엘을 유다로 부르기를 거절했다. 당시 유대인들의 하나님에게서 약속받은 땅이라는 선민의식은 로마인들에게 미움을 샀고 하드리아누스는 이 땅과 유대인들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원했다. 결국 남서쪽 지중해안을 가리키던 "필리스티아/팔레스티아"를 확장하여 이스라엘 전 지역의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게 했다. 현재 이 지역은 영어식 표기에서 팔레스타인이 되었다. 한국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 사람들이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 고대의 적이었으면서 현대에서 마저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말하면서 미워하는 이들도 보았다. 그러나 고대 블레셋 사람들은 오늘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는 무관한 사람들로 그들은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다.